

강진 마량항 강태공 '복직'...지역경제 '들썩'

군, 낚시배 7척 유치 한 달새 1200명 방문...놀토시장 방문도 늘어 전국 낚시대회·낚시체험상품 개발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박차

강진군이 바다낚시 어선 7척을 유치한 뒤 한 달 만에 마량항을 찾은 낚시객이 1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은 지난 6월23일 바다낚시 어선 7척을 유치해 마량항에서 출항식을 열고 본격적인 해양레저관광 출발을 알렸다.

출항식 이후 한 달여 동안 마량항을 찾은 낚시객은 총 120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낚시객들이 인근 식당과 편의점, 커피 전문점, 주유소, 숙박업소 등에서 지출한 비용은 2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마량 놀토수산물시장을 찾는 방문객은 월 9000명 안팎으로, 강진군은 바다낚시 운영으로 인해 한 달간 방문객이 12%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다.

강진군은 1차 산업에 머무르고 있는 어촌 경제를 고도화하기 위해 민선 8기 핵심 전략의 하나로 '해

양레저관광 활성화'를 내걸었다.

강진군은 바다낚시 어선 7대를 마량항에 유치해 놀토수산물시장이 열리지 않는 평일에도 마량항 관광객을 끌어들이 수 있게 됐다. 지난달 초부터는 문어 금어기가 끝나면서 대형 관광버스를 동원한 단체 손님이 늘고 있다. 오는 11월까지의 바다낚시 성수기가 이어지면서, 마량항을 찾는 강태공들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바다낚시 이용료는 어종과 일정에 따라 다르다. 이달 감치 낚시 1회 이용료는 20만원, 문어 낚시는 8만원 안팎이다.

강진군은 관광객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 전국 규모 바다낚시 대회를 열고, 낚시 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사업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바다낚시 어선을 유치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마량면 지역경제



바다낚시 어선 7척을 유치한 강진 마량항이 새벽낚시를 즐기려는 낚시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가 들썩이고 있다"며 "마량항이 바다낚시 중심지로 거듭나고 바다낚시를 필두로 해양레저관광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담양 쌀 프랑스 간다 12t 수출...올 세번째 유럽으로

담양 대표 쌀 '대술 맑은 담양 쌀'이 프랑스 수출길에 올랐다.

담양군과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담양군)은 지난 1일 주식회사 아트리치와 수출 계약을 맺고 프랑스 파리에 담양 쌀 12t을 수출했다고 2일 밝혔다.

담양 쌀의 유럽 수출은 지난 1월 네덜란드-체코 60t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다.

담양군은 우리나라 농특산물의 위상에 힘입어 수출길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

담양 쌀은 대한민국 명품쌀 평가에서 대상을 받고, 13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대상(7회)·최우수상(5회)을 받아왔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담양 쌀이 미국에 3년간 37t 수출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7t의 쌀을 미국에 수출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현재 쌀 재고 부족으로 이번 수출물량은 적으나 올해 쌀 수확 이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담양 쌀의 세계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

나주시의회 "에너지공대 흔들기 당장 멈춰야"

'산업부 윤의준 총장 해임 건의' 즉각 철회·정치 탄압 중단 촉구

나주시의회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 윤의준 총장 해임 건의에 대해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주시의회는 최근 소속 의원 16명이 의회청사 앞에서 연대 서명하고 산업부에 윤의준 총장 해임 건의를 즉각 철회 및 정치탄압 중단 요구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시의회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산업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 또한 겸허히 수용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시정·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산업부가 대학 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나 교육부의 대학 종합감사 선례와 비교할 때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감사권의 남용이며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원들은 "산업부의 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로 또다시 에너지공대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에너지공대의 2025년 준공 계획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에너지공대 운영차질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마저도 흔들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 최고 경영자인 총장을 해임하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에너지공대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해체하려는 의도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에 따른 나주시의회 입장

원부는 과도한 처분인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를 당장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일 의회청사 앞에서 산업부에 윤의준 총장 해임 건의 즉각 철회와 정치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나주시의회 제공>

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며 "산업부에 과도한 처분인 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를 당장 철회할 것과 에너지공대를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나주시도 "대학 운영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대학 설립 초기 업무 시스템의 불안정 등을 감안하면 총장 해임은 과도한 면

이 있다"며 "켄텍 설립 당위성과 개교 2년차를 맞은 켄텍의 중추적인 시기를 강조하며 총장 해임 건을 재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7일 켄텍 감사 결과를 통해 대학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부적정사용 등을 지적하며 윤 총장 해임을 이사회에 건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json@



강진군문화관광재단과 전남관광재단이 최근 '강진 특화 관광상품 개발·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이만우 팀장, 임채성 팀장, 임석 대표이사, 전남관광재단 김명신 대표, 박근영 팀장. <강진군 제공>

'가을의 운치' 강진 고택서 한복 패션쇼

강진군문화관광재단-전남관광재단 협약... 10월말 백운동원림서

강진군문화관광재단과 전남관광재단이 오는 10월 백운동원림에서 '한복 패션쇼'를 함께 열기로 했다.

두 재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오는 10월 말에는 백운동원림에서 '한복 패션쇼'를 함께 연다. 한복과 고택을 연계한 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두 재단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사찰 체험(템플스테이)과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활동, 청년 관광 창업기업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위한 전남 특화 관광상품 개발·운영 ▲관광기업 연계 상품 공동 개발 ▲관광시설 지원 협력체계 구축 ▲관광상품 판로 개척 위한 브랜드화 ▲소관 사업 연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강진군은 올해 상반기에만 7개 축제를 열어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임석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전남관광재단과 업무협약으로 다양한 공동 관광 상품개발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전남 관광의 부흥에 우리 강진이 앞장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화순군립요양병원 '군민 치매안심병실' 운영

22개 병상 무료 간병 가능

전남 첫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화순군립요양병원에 '화순군민 치매안심병실'이 운영된다.

화순군은 지난 28일 화순군립요양병원에서 '화순군민 치매안심병실' 현판을 걸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화순군립요양병원은 지난 3월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에 지정됐다.

이 병원은 총 60개 병상을 확보했으며, 1개 병동은 치매안심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22개 병상(4실)은 화순군민 치매안심병실로 운영된다.

화순군민 치매안심병실을 이용하는 지역 치매환자는 무료 간병을 받을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치매 환자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는 간병비를 지원하면서 화순군 치매 환



화순군(군수 구복규·왼쪽 두번째)이 최근 화순군립요양병원에서 '화순군민 치매안심병실' 현판을 걸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화순군 제공>

자를 집중적으로 진료·관리할 것"이라며 "환자와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장성에 원자력안전세 신설" 서명운동 목표 초과 달성

장성군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해 추진한 100만 주민 서명운동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장성군에 따르면 이번 서명운동은 전국원전 인근 지역동맹에서 5월10일부터 7월31일까지 추진했다.

방사능재해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km까지 확대된 2014년 이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원전 인근 23개 지방자치단체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목표로 진행했다.

장성 지역은 지난해 5월 말 기준 영광 한빛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 이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4개면 25개 마을주민 7800여명이 거주하지

만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서명운동 기간 장성군민들은 한 달 만에 목표한 1만1000명을 넘어선 1만7234명이 서명에 참여해 목표보다 157% 초과 달성하는 열띤 참여율을 보였다.

김한중 장성군수도 지난 5월 SNS 챌린지에 동참해 고재진 장성군의회 의장, 이상의 함평군수, 정용래 대전유성구청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하며 서명운동 대국민 홍보에 힘을 보탰다.

김 군수는 "원자력안전교부세가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협력하고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 '광주 군공항 이전' 여론조사 12월로 연기

함평군이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지역민 여론조사 시기를 애초 8월 말에서 12월로 연기한다고 2일 밝혔다.

함평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예비 이전 후보지 유의사항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군민 여론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원래 이달 말까지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계획했던 대면 조사 방식이 5주 이상 걸릴 것으로 예

상하면서 조사 시기와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함평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 전화번호(안심번호)를 받아 지역 방송사를 통해 무선 전화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함평군은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군공항 유지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어왔다. 지난 1일에는 군공항 이전을 찬성·반대하는 주민 단체가 한데 모여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이상의 함평군수가 담화문을 발표하며 여론조사 계획을 밝혔다.

함평군은 주민 갈등을 줄이고 군민 의견이 더 정리된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장정진 함평군 기획예산실장은 "애초 8월로 계획된 여론조사가 차질을 빚게 돼 군민들에 양해를 구한다"며 "찬성과 반대 측 모두 여론조사를 연기하기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군민이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힘쓰고 지역 내 반박과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세일글

"안심을 주는 장성경찰 되도록 노력하겠다"

전병현 장성경찰서장

“안전을 넘어 안심을 주는 장성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제81대 장성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전병현(56) 총경은 취임식 대신 각 부서를 돌며 인사를 하고 "소통과 공감에 넘치는 업무로 군민에게 신뢰를 주는 경찰이 되자"고 말했다.

전 서장은 "기분과 원칙에 충실한 경찰로 정성을 다하자"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정성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 출신인 전 서장은 광주서석고와 조선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4년 경찰에 입문했다. 전남정 과학수사계장·사이버범죄 수사대장, 광주정 과학수사계장 등을 거쳐 광주청 치안지도관을 역임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